



소개

폴라리스 크로노그래프

새롭게 선보이는 오션 그레이 래커 다이얼

주요 특징:

- **정교한 다이얼:** 3 가지 마감 기법을 적용한 35 겹 래커 코팅
- **인하우스 무브먼트:** 일체형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을 갖춘 칼리버 761
- **실용적인 스타일:** 교체 가능한 스트랩 2 개

2018 년부터 모던하면서 스포티한 위치를를 재정의해 온 폴라리스 컬렉션은 일상의 모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2025 년, 예거 르쿨트르는 메종의 시그니처 오션 그레이 컬러로 래커 처리한 새로운 다이얼을 갖춘 폴라리스 크로노그래프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우아한 품격과 탐험의 극적인 만남

폴라리스 컬렉션은 강력한 성능과 스포티한 위치의 실용적인 기능 그리고 예거 르쿨트르를 상징하는 우아한 디자인이 완벽히 균형을 이룹니다. 1960 년대 메종이출시한 다이빙 위치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며 스포츠 위치의 철학을 대변하는 동시에 빈티지한 매력을 우아한 품격과 자신감 넘치는 모던한 스타일로 재해석합니다.

폴라리스 크로노그래프는 손목을 편안하게 감싸주어 캐주얼하면서도 우아한 데일리 타임피스는 물론고성능 스포츠 위치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착용감이 뛰어난 균형 잡힌 디자인의 42mm 스틸 케이스는 선명한 라인, 깔끔한 곡선형 러그, 섬세한 베젤, 글래스 박스 크리스털, 브러싱 및 폴리싱의



조합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표면 등 폴라리스의 핵심 디자인 코드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폴라리스 컬렉션에 영감을 준 1960년대 모델 특유의 커다란 크라운과 견고한 푸셔는 그립감과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스포티 다이얼에 색다른 매력을 더하는 오션 그레이 래커

깔끔하고 모던한 라인이 돋보이는 새로운 오션 그레이 다이얼은 크로노그래프의 스포티한 매력을 강조하는 래커 마감과 밝은 오렌지 디테일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어 과감하면서도 강렬한 시각적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교한 구조를 이루는 다이얼은 중앙 디스크, 아워 마커를 적용한 중앙 링, 타키미터 눈금을 새긴 외부 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스크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레이 브러싱은 광택이 흐르는 매끈한 아워 링과 섬세한 대비를 이루며, 밝은 컬러에서 짙은 컬러로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양쪽 섹션의 래커 컬러가 다이얼에 시각적 깊이를 더합니다.

다이얼을 구성하는 부품을 래커 처리하기까지 각 레이어를 수작업으로 코팅해야 하는 길고 까다로운 공정이 이어집니다. 먼저 투명한 광택 레이어를 만든 다음, 컬러 레이어를 4차례 추가하고 블랙 컬러를 입혀 그라데이션 효과를 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이얼의 두 메인 섹션을 일치시키기 위해 색채와 그라데이션을 정확히 컨트롤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후 그윽한 깊이감과 질감을 더하기 위해 투명한 래커를 30차례 코팅합니다.

폴라리스 크로노그래프 다이얼의 레이아웃은 시대를 초월한 스타일이 돋보입니다. 쉽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센트럴 크로노그래프 세컨즈 핸드를 통해 핵심 측정값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시 방향 서브다이얼은 3시 방향 30분 카운터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으며, 세컨즈 디스플레이로 다이얼에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서브다이얼의 원형 그레인도 글로시한 센트럴 다이얼 그리고 텍스처 마감이 돋보이는 아워 링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어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시각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오렌지 컬러로 주요 디스플레이를 강조하고 전체적인 구성에 역동성을 부여합니다.



현대적인 폴라리스 디자인 코드를 따르는 스켈레톤 핸드로 가시성을 높였으며, 대담한 사다리꼴 인덱스는 크로노그래프 디스플레이의 섬세한 디테일 사이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모험을 위한 필수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인덱스와 숫자, 핸즈 끝부분이 야광 물질로 코팅되어 가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보석과도 같은 워치메이킹 유산의 계승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백을 통해, 탁월한 성능과 기계적 우아함을 결합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전형적인 워치메이킹 접근법을 보여주는 오토매틱 무브먼트, 칼리버 761 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트윈 배럴로 구동되는 일체형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 수직 클러치를 탑재한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으며 65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블루 스크류, 꼬뜨 드 제네브(Côtes de Genève) 장식의 베이스 플레이트, 'JL' 모티프가 새겨진 시그니처 오픈워크 와인딩 로터 등의 정교한 마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브먼트는 스위스 발레드주에 위치한 매뉴팩처에서 디자인, 제작, 조립되었습니다.

오션 그레이 폴라리스 크로노그래프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포티한 타임피스이며, 블루 그레이 캔버스와 질감을 살린 블랙 러버 버전의 두 가지 교체 가능한 스트랩이 함께 제공되어 스타일과 기분에 맞춰 간편하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폴라리스 크로노그래프 오션 그레이

케이스: 스테인리스 스틸

크기: 지름 42mm, 두께: 13.39mm

칼리버: 오토매틱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761

기능: 시, 분, 스몰 세컨즈, 크로노그래프에 30 분 카운터, 센트럴 세컨즈 인디케이터 및 타키미터



파워 리저브: 65 시간

다이얼: 오션 그레이 래커

스트랩: 블랙 러버 스트랩과 추가 블루 그레이 캔버스 스트랩, 교체 가능한 폴딩 버클

방수: 10 바(bar)

제품 번호: Q9028651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